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 「相火論」의 比較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

A Study on Comparison Gunhwa-ron(君火論) by Jinmutaek(陳無擇) and Sanghwa-ron(相火論) by Judangye(朱丹溪)

Dep.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Kyung Hee University

Baik You-Sang

From the study on A Study on Comparison Gunhwa-ron(君火論) by Jinmutaek(陳無擇) and Sanghwa-ron(相火論) by Judangye(朱丹溪),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Judangye(朱丹溪) said that Gunhwa(君火) is human fire[人火] and Sanghwa(相火) is heaven's fire[天火] having being opposite to the opinion of Jinmutaek(陳無擇). Jinmutaek(陳無擇) considered Gunhwa(君火) as native fire, Judangye(朱丹溪) also did Sanghwa(相火) as the source of life force.

The Sanghwa(相火) that is heaven's fire[天火] mentioned by Judangye(朱丹溪) is located in part of Eum(陰) or deep part, because it based on the nothingness(虛無) to behind inside.

Having become large the meaning of Gunhwa(君火) and Sanghwa(相火) defined by Jinmutaek(陳無擇) and Judangye(朱丹溪), more smaller that of Gunhwa(君火) and Sanghwa(相火) in the opposite site.

Jinmutaek(陳無擇) and Judangye(朱丹溪) had difficult to state fairly about the meanings of Gunhwa(君火) and Sanghwa(相火), because of exceed intent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ir own opinions.

Key words: Gunhwa(君火), Sanghwa(相火), Jinmutaek(陳無擇), Judangye(朱丹溪)

으며, 朱丹溪²⁾는 「格致餘論·相火論」에서 君火와

I. 緒論

陳無擇¹⁾은 「三因極一病證方論·君火論」에서 君火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論하고 “醫者, 苟不明此, 皆墮於術數技藝焉.”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

相火의 관계, 相火와 관련된 臟腑, 相火의 生理 및 病理의 역할 등에 대하여 자세히 논술함으로써 자신의 의학사상에 밀바탕이 되는 중요한 相火理論을 주창하게 된다. 陳無擇과 朱丹溪의 연대 차이는 약 150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나 朱丹溪는 「相火論」에서 陳

*교신저자: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26, baikys@khu.ac.kr

1) 中國 南宋 때의 의학자. 本名은 言이며 無擇은 字이다. 여러 이론에 밝고 임상에 정통하였으며, 본인의 論說과 醫方 수 천여 가지를 모아 淳熙 元年(1174)에 三因極一病證方論 6 권을 저술하였다.

2) 中國 元代 때의 의학자(1281-1358). 本名은 震亨이며 字는 彦修이며 丹溪라고도 한다. 劉完素의 火熱學說을 더욱 발전시켜 陽有餘陰不足論을 제창하였고, 특히 相火論을 발전시켜 임상에서는 滋陰降火의 治法을 주로 사용하였다. 格致餘論, 丹溪心法, 局方發揮 등의 책을 남겼다.

無擇의 君火에 대한 논설을 비판하고 相火의 개념을 확장하여 예방 및 치료에까지 응용함으로써 「內經」 이후 이어져온 君火 및 相火의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후대 한의학의 이론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³⁾. 본 논문은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내용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君火相火論이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君火 및 相火 兩者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本論

1. 人火와 天火

朱丹溪는 그의 「相火論」 서두에서 君火와 相火에 대하여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라고 하여 각각 人火와 天火로 규정하였다⁴⁾. 반면, 陳無擇은 “相火則麗於五行⁵⁾, 人之日用者, 是也. 至于君火, 乃二氣之本原⁶⁾, 萬物之所資始.”라고 하여 相火는 사람이 매일 살아나가는데 쓰이는 것이고, 君火는 陰陽의 本

原으로서 萬物을 資生하여 길러나가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天火와 人火의 개념은 무엇인가. 글자대로 해석해 본다면 人火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 안에 가지고서 늘 사용하며 쉽게 드러나 알 수 있는 火氣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天火란 하늘에 근본하고 있으며 미루어 나가면 先天까지 이어져 宇宙 本原의 이치와 닿아있는 火라고 할 수 있다.

우선, 朱丹溪의 君火, 相火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君火에 대하여,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於五行, 故謂之君.”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名이라는 것은 「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대한 王冰의 해석을 쫓은 것으로서, 王冰은 明을 名으로 보아 君火는 名으로써 하늘의 뜻을 받들고 相火는 자리를 지켜서 해야 할 命을 받는다고 하였다⁷⁾. 또한, 形氣相生이란 생명체 곧 사람의 생명활동을 말하는데, 形이 氣를 만들고 氣가 다시 形을 길러서 陰陽變化가 반복되는 삶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陰陽變化를 五行의 運行에 빗대어 보았을 때 火의 象으로 드러나는 것을 君火라 하였다.

반면에 相火에 대해서는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⁸⁾”이라 하였는데, 守

3) 陳無擇은 당시 여러 醫學理論에 밝았으며 內經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르려고 하였고, 朱丹溪도 체계적인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많은 중요한 論說를 제시하였으므로, 두 사람 모두 君火相火論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 朱丹溪가 相火論의 서두에서 人火와 天火를 바로 규정한 것은 다분히 陳無擇이 君火論에서 相火를 ‘日用之火’라고 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相火論」의 말미에서 “陳無擇이 通敏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暖熾로써 君火를 논하고 日用의 火로써 相火를 말하여서 또한 일찍이 깊은 곳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니, 후인들에 귀멸고 눈먼 자가 없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비통할 진저(以陳無擇之通敏且以暖熾論君火日用之火言相火而又不曾深及宜乎後之人不無设替也悲夫).”라 하여 반박의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悲夫’의 표현은 바로 陳無擇 君火論의 終句를 그대로 따른 것임.

5) 相火는 단지 五行에 붙어있는 것이라 하여, 五行의 이치에 따라 운행하는 君火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6) 여기서 二氣는 陰陽之氣 또는 天氣 및 地氣를 의미한다. 즉, 天地의 陰陽交流에 의하여 萬物에 태어나 자라게 되는 것이다. 本原은 곧 陰陽이 아직 分化되지 않았거나 이미合一된 상태를 말하나 三數로서 완성되는 경지와 같다.

7) 王冰은 “君火는 相火의 오른쪽(右間)에 있어 단지 임금의 자리에 이름만을 세우고 歲氣는 세우지 않으니, 그러므로 하늘의 六氣는 그 氣와 짝하여 君火의 政을 행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서 하늘의 命을 받들어 火를 펼쳐 행할 뿐이니, 名으로써 하늘을 받들므로 ‘君火以名’이라 하고 자리를 지켜 命을 간직하므로 ‘相火以位’라고 한다(君火在相火之右, 但立名於君位, 不立歲氣, 故天之六氣, 不偶其氣以行君火之政, 守位而奉天之命以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稟命, 故云相火以位.).”라고 하여 明을 名으로 보고 君火의 名을 임금의 추상적 권위와 사명으로써 설명하였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上者應離, 陽在外也, 故君火以明. 下者應坎, 陽在內也, 故相火以位. 火一也而上下幽顯, 其象不同, 此其所以有辨也.”라 하여 ‘君火以明’으로 그대로 보았으며, 高世栻도 素問直解에서 “六氣之中, 有二火, 則君火以明, 相火以位, 君主神明, 故曰以明, 相主輔佐, 故曰以位.”라 하여 임금은 神明이 출하기 때문에 밝다고 하였고 재상은 보좌하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8) 朱丹溪는 相火의 相을 君에 상대적인 宰相의 의미로 보기 보다는 事物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象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相과 象은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단지 相이 좀 더의 향적이며 視覺的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位稟命은 王冰의 설명을 따른 것이고 生於虛無는 자신의 독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虛無란 말은 老子思想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實과 有의 세계,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세계에 대비되는 차원을 말하며 동시에 이러한 현상세계를 낳고 길러주는 玄牝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相火가 비록 현실에서 움직임을 일으키는 陽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虛無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궁극의 이치를 밖으로 氣를 통하여 발현하는데 매개가 되는 일종의 象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君火에 의하여 形氣相生이 이루어지는 내면에는, 相火가 虛無라고 하는 生命力的 本原에 그 바탕을 두고서, 이미 받아 간직하고 있는 命⁹⁾을 실행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朱丹溪가 말한 虛無라고 하는 陰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太極이 굳건히 恒動하는 陽의 세계로 다시 귀결된다.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各一其性……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相火論)

太極이 움직여 陽을 낳고 고요하여 陰을 낳으며, 陽이 움직여 變化하고 陰이 고요하여 統合하니, 이로써 水火木金土 五行을 낳아 각각 그 性を 갖게 된다... 火는 속으로 陰을 하고 밖으로 陽을 하여 움직임을 주로 하는 것이니 때문에 무릇 움직이는 것은 모두 火에 속한다……하늘은 萬物을 낳은 일을 주로 하므로 항상 움직이고, 사람은 이 생명을 간직하고서 또한 항상 움직이니, 그 항상 움직이는 것은 모두 相火가 하는 것이다.

이때의 動은 겉으로 드러나는 形氣相生의 盛衰變化가 아니라 내면의 恒動이므로 항상 늘 굳건하게 움직이는 君子의 모습을 가진 太極과 연결된다고 할 수

9) 여기서 命은 내용적으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나 형식면으로 보면 象과 같이 本性을 밖으로 발현시키는 내면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있다.

반면에 陳無擇은 君火가 하늘을 받들어 그 역할을 대행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君亦天也, 天亦君也.”라 하여 天과 君火를 동일시하고 있다.

2. 本原之氣

陳無擇은 君火를 陰陽 二氣의 本原으로 보았으며, 또한 사람이 태어날 때 관여하는 先天의 火로도 보고 있다.

人之初生, 必投生於父精母血之中而成形. 精藏腎, 腎屬水, 故天一而生水. 血藏心, 心屬火, 故地二而生火. 識爲玄¹⁰⁾, 玄屬木, 故天三而生木, 乃太乙含三引六之義也¹¹⁾. 亦道生一, 一生二, 二生三之數也, 則知精血乃裁成於識. 以識動則暖, 靜則息, 靜則無象, 暖觸可知, 故命此暖識¹²⁾以爲君火, 正內典所謂暖識息三連持壽命者也.(君火論)

사람이 처음 날 때에 반드시 父母의 精血 속에 생명을 맡겨서 몸을 이루게 된다. 精은 腎에 갈무리되고 腎은 水에 속하므로 하늘이 一을 하여 水를 낳는다. 血은 心에 갈무리되고 心은 火에 속하므로 땅이 二를 하여 火를 낳는다. 얕은 玄을 하고 玄은 木에 속하므로 다시 하늘이 三을 하여 木을 낳는다. 이것이 곧 太乙이 三을 품고 六을 당긴다는 뜻이며, 또한 道가 一을 낳고, 一이 二를 낳고 二가 三을 낳는 數理이니, 精과 血이 이내 識에서 마름질되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識으로써 움직이면 따뜻하다가 고요해지면 식으며, 고요할 때엔 象이 없다가 따뜻함

10) 이때의 識은 단순히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知行을 일으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근원적인 삶, 곧 지혜라고 할 수 있으나 문자로는 玄이라 표현한 것이다. 內經에서는 “在天爲玄……玄生神.”이라 하여 玄은 하늘과 通하고 神妙함을 낳는다고 하였다.

11) 여기서 太乙은 宇宙變化의 主體인 큰 의식을 표현한 것이며, 이 太乙이 天地公事의 완성을 위하여 안으로는 三으로의 통합을 추구하고 밖으로는 六氣의 盛衰變化를 일으켜 氣交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12) 朱丹溪의 相火論에는 “以陳無擇之通微, 且以煖熾論君火, 日用之火言相火, 而又不曾深及.”이라 하여 ‘識’이 ‘熾’字로 바뀌어 있다. 轉寫之誤가 아니라면 朱丹溪가 앞의 ‘暖’字과 함께 해석하여 타오르는 불의 의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을 감축하고서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따뜻함[暖]과 알[識]을 命名하여 君火라 하니, 바로 內典에서 '따뜻함과 알과 식음, 셋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壽命을 유지한다.'고 이른 것이다.

여기서 완성의 數인 三과 識의 개념이 중요하며, 모두 君火의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暖과 識을 모두 君火라고 하였는데,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氣가 모여야 하며 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혜 즉 玄玄함이 있어야 한다. 즉, 君火는 실제 陽氣를 운행시키는 것¹³⁾과 知慧를 발휘하는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君火는 天과 人 사이를 근원적으로 매개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乾以元亨利貞而運行於其上, 君以德化政令而輔成於其下, 天道順序, 而生長化收藏不失其時, 君道助順, 故進退存亡不失其正, 其實皆一理也.”라고 하여 乾天은 정해진 차례를 따라 일정하게 운행하여 五運을 일으키고, 君子는 그 운행을 도와 人生의 盛衰變化 곧, 進退存亡 중에서 그 율바름을 잃지 않도록 애쓰는데, 결국 그 내용은 같은 이치라 하였다. 마치 우리 몸에서 하는 君火의 역할을, 天地人 三才 중 聖인이 가운데에서 財成輔相¹⁵⁾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君火의 역할을 또한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成象成法, 雖主配于心腎, 推而明之一點精誠, 無物

13) 일반적으로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氣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쌓인다는 의미와[蘊] 따뜻하다는 의미[溫]가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君火에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연장을 위해 무조건 縮氣하는 것이 아니고 萬人, 萬物을 위해 같이 따뜻해지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오히려 氣를 소통하고 운행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4) 一水가 二火로 分化되었다가 三木으로 다시 합쳐되는데, 이때의 三數의 일은 一의 天地를 지나 다시 天[陽]이 행하게 된다. 三木의 자리에서 陰陽을 모두 갖춘 天의 神明이 나오게 되니 곧 識과 玄을 말한다. 陰에 속한 一水를 제외하고 陽에 속하는 二火와 三木 모두를 君火로 名한다고 하였다.

15) 財成이란 聖인이 資源을 마음질하여 백성들에게 잘 쓰이도록 制度와 文物을 처음 만드는 것이고 輔相이란 주로 宰相이 그것을 대대로 고치고 다듬어서 유지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財는 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不備, 是宜君火之用, 上合昭昭, 下合冥冥, 與萬物俱生而無所間斷也.(君火論)

象을 이루고 法을 이루는데 비록 주로 心腎과 짝을 이루나 미루어 한 점까지 밝혀 정성을 다한다면 物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는 마땅히 君火가 일을 함이 위로는 밝고도 밝은 이치에 합하고 아래로는 희미하고도 희미한 현실에 부합하여 萬物과 더불어 함께 살되 쉬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朱丹溪는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이라 하여 하늘이 萬物을 낳을 수 있고 萬物을 대표하는 사람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相火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곧 相火를 生命本原의 火로 본 것이다.

3. 天火之所在

朱丹溪가 말한 相火 즉 天火는 虛無에서 출하여 내면에 갖추어져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陰部 또는 深部에 자리 잡게 된다. “天之火, 雖出於木而皆本乎地.”라 하여 이를 地라고도 표현하였다.

見於天者, 出於龍雷則木之氣, 出於海則水之氣也. 具於人者, 寄於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 膽者, 肝之腑, 膀胱者, 腎之腑, 心包絡者, 腎之配, 三焦以焦言而下焦, 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相火論)

하늘에서 드러나는 것은 龍雷로부터 나오니 곧 木의 기운이고 바다로부터 나오는 것은 곧 水의 기운이다. 사람에게 갖추어서는 肝과 腎 두 부분에 깃들어 있으니 肝은 木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한다. 膽은 肝의 腑이며, 膀胱은 腎의 腑이며, 心包絡은 腎의 짝이 되며, 三焦는 焦로써 말하자면 下焦에서 肝과 腎을 담당하는 부분이니, 이 모두 陰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朱丹溪는 陽氣가 動하기 위해서는 陰氣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陰의 자리를 통해서만 相火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 즉, 天火인 相火가 비록 天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나 그것이 움직여 외부로 발

현되는 자리는 陰으로서 아래에 속한다는 것이다. 上焦에 있는 心包를 제외하고는 相火와 관련된 臟腑는 모두 下焦에 있으며, 心包도 絡脈으로 연결되어 역시 下焦와 이어져 있다¹⁷⁾.

4. 相火, 君火 개념의 混用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몸을 형성하고 氣를 運行하게 되는데, 이러한 陰陽의 交合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을 火로 상징할 수 있다. 陳無擇과 朱丹溪가 각각 논한 君火와 相火는 모두 이러한 인간 生命 本原의 火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다. 즉, 陳無擇은 君火가 二氣之本原으로서 乾天을 대신하여 萬物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朱丹溪는 天인이 모두 恒動하는 것은 相火가 타오르기 때문이며 相火가 있음으로 인하여 天地가 萬物을 생할 수 있고 또한 萬物이 생을 영위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이와 같이 天火의 대상을 각각 君火 또는 相火로서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天火의 의미가 지나치게 절대적이고 상위적인 火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그와 대대적인 위치에 있는 君火 또는 相火의 의미까지 그 안에 포괄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⁸⁾. 朱丹溪의 경우 相火가 下焦에 자리하여 근원의 氣를 밖으로 발현한다는 그의 견해는 합당하나, 하늘과 사람이

이 火가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相火가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설명은 相火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相火와 君火의 역할을 제대로 분별하여 서로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陳無擇의 경우 相火에 대하여 단지 日用之火라고만 규정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君火의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位居少陽, 象君之政.”이라 하여 相火를 단지 君火의 밑에서 위치하여 그 다스림을 받는 火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君火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相火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고 할 수 있으나 相火가 君火를 위해 輔佐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朱丹溪도 역시 「內經」의 五火¹⁹⁾가 모두 相火를 쫓아 動한다고 하여 情志變化에서 나타나는 相火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물론 朱丹溪도 「陽常有餘陰不足論」 등 여러 다른 論說에서 心君火의 안정을 중시하였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相火論」에서는 “人心이 道心에게 命을 들어서 계속 주도하여 안정되면 저 五火의 움직임이 모두 고요해지고 節度에 맞게 될 것이며, 相火가 오로지 天地의 造化를 받들어 도움으로써 살아 쉼없는 天地의 運行이 이어질 따름이니, 어찌 (元氣를) 해침이 있겠는가(人心聽命乎道心而又主之以靜, 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禪補造化²¹⁾, 以爲生生不息之運用耳, 何賊之有.)”라 하여 生生不息의 안정적 運行을 유지하는데 相火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相火가 虛無에서 출하였다 하여 相火의 개

16) 朱丹溪는 “그러므로 우리가 없드리지 않거나 용이 칩거하지 않거나 바닷물이 땅에 부딪히지 않으면, 곧 우리가 울고 용이 날고 바다가 파도치지 못할 것이다. 울고 날고 파도치는 것은 모두 움직여 타오르는 것[火]과 같다. 肝腎의 陰이 모두 相火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같아질 수 있다(故雷非伏, 龍非蟄, 海非附於地, 則不能鳴, 不能飛, 不能波也. 鳴也, 飛也, 波也, 動而爲火者也. 肝腎之陰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라 하였다. 陰部의 相火를 통하여 다시 하늘과 交通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7) 李東垣은 內外傷辨論에서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負.”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包絡은 命門이나 三焦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上焦의 心包와 연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心包는 下焦의 相火가 유일하게 上焦로 연결되어 있는 臟腑로서 情志의 變化를 통하여 病證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18) 陳無擇은 “其所以謂之君火者, 以其行炎暑, 象君之德.”이라 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炎暑와 같이 뜨거운 火熱의 象도 모두 君火의 德으로 포함시켰다.

19) 肝心脾肺腎 五臟의 火를 말함.

20) 朱丹溪의 陽常有餘陰不足論에서는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疎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矣.”라 하여 君火의 易動에 의하여 相火의 妄動이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21) 禪은 天地에 올리는 祭로서 원래 天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禪을 통하여 天과 地의 뜻과 합치되어 無私, 無慾의 경지에 들어가 知行의 極에 이를 수 있다.

념을 현실세계 이전의 理的 세계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君火가 본디 가지고 있는 神明的 영역까지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病因病機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朱丹溪는 十九病機의 대부분을 相火와 관련시킴으로서²³⁾ 火因論의 病機를 단순화하였다²⁴⁾. 치료면에서 陰不足論을 주장하여 滋陰法을 토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相火의 病機를 크게 강조한 것은 오히려 清熱瀉火의 主火論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

君火에 대한 朱丹溪의 견해를 살펴보면, 王冰의 君火以名의 해석을 좇아 이름만을 세울 뿐이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形氣相生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온전히 無形의 이름만을 가진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內經』에서는 陽氣를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과정에 君火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相火의 힘을 빌어서 조절하는 경우가 많으나 朱丹溪는 오히려 相火가 無形의 象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에야 밖으로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朱丹溪가 본 君火와 相火의 관계는 名과 實의 그것과 같아서, 形과 氣를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名 즉, 君火로 보았고 내부에 숨겨진 本體와 같은 變化運動의 主體를 實 즉, 相火로 본 것이다.

또한, 朱丹溪는 “周子가 또한 말하기를 聖人은 中正의 마음과 仁義의 德으로 안정시켜 고요함에 힘쓴다고 하였고, 朱子가 말하기를 반드시 道心으로 하여금 항상 내 몸의 주인으로 삼아 人心이 늘 명령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火를 잘 다루는 것이다(周子又曰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朱子曰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而人心每聽命焉, 此善處乎火者.)”라고 하여 聖人君子의 마음과 道心을 강조하였는데, 실제 君火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相火論』에서 神의 작용을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子曰神發知矣.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相火論)

周子가 말하기를, 神이 앞을 펼친다. 五성이 外物과 感觸하여 모든 일이 나오게 되는데 앞이 있고난 후에야 다섯 가지 性이 外物을 느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神에 대한 설명도 君火의 속성과 연관되지 않고 있으며, 『陽有餘陰不足論』에서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이라 한 것과 같이 君火는 易動하므로 항상 안정시켜야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陳無擇은 『君火論』에서 “神明出入, 象君之身.”이라 하여 君火가 神明을 내어 心身을 조절함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相火論』에서 君火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충분히 밝혀놓았다면 相火의 의미도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며 兩者 간의 分別도 쉬웠으리라 생각된다.

『內經』에 나타난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君臣의 上下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君火는 위에 있어서 陽의 極點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相火는 아래에 있어서 升陽시키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²⁵⁾. 上下의 관계는 또한 用事를 할 때 體用의 관계로도 나타나게 되는데 君火는 相火에 비하여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²⁶⁾ 실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내

22) 神明은 사람의 일체 정신활동을 총괄하여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창조적이고 밝은 지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天地宇宙의 理的 세계에 관련되어 있다.

23) 朱丹溪는 相火論에서 “岐伯歷舉病機一十九條而屬火者五, 此非相火之爲病之出於臟腑者乎.”라 하여 十九病機의 상당수의 원인이 相火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原病式」을 인용하여 “諸風痺皆屬於肝火之動也, 諸氣脹鬱病痿屬於肺火之升也, 諸濕腫滿屬於脾火之勝也, 諸痛痒瘡瘍屬於心火之用也.”라 하여 五臟火도 모두 相火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24) 예를 들어, “少陽病, 惡寒鼓慄, 臈病振寒, 少陰病, 洒淅惡寒振慄, 厥陰病, 洒淅振寒, 非諸禁鼓慄如喪神守之屬火乎.”라 하여 극심한 惡寒으로 인한 情志의 변화도 대부분 火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5)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君位臣則順, 臣位君則逆, 逆則其病近, 其害速, 順則其病遠, 其害微, 所謂二火也.”라 하여 君이 臣 위에居하고 臣은 君의 아래에서 政을 잘 실행할 때 君臣의 관계가 순해져서 病이 멀어지고 害가 미미하게 된다고 하였다.

26) 經絡의 流注에서도 手少陰心經을 대신하여 手厥陰心包經의 腧穴들을 언급하였으며, 運氣篇의 脈法에서도 少陰君火가 위치한 자리의 脈은 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心包에

면에 자리 잡고 五行의 變化를 조절하는 本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⁷⁾.

三陰三陽의 순환으로 살펴보면 少陰君火는 厥陰風木의 다음에 위치하는데, 精氣를 發散하여 形을 키워나가고 이를 통하여 밖으로부터 氣血을 받아들이는 터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君火는 內外의 氣를 合一하는데 관여하므로 同化의 火라고 부르기도 한다. 少陽相火는 太陰濕土의 뒤에 위치하여 이미 合一되어 융화된 氣血을 태워 분리시킴으로써 精을 다시 生化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또한 異化의 火라고 부르기도 한다. 同化와 異化는 양자 모두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지만, 君火가 먼저 그 생명현상의 터전을 만들어 선도한다면 相火가 이어서 실질적인 불을 태워서 생명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게 된다.

君火와 相火 모두 생명현상의 本原과 관련되어 있으나 君火가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形體를 열어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개방적인 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相火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形質에 담겨진 氣血을 태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으로 精을 끊임없이 갈무리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陰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兩者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²⁸⁾.

사람이라고 하는, 氣의 운행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가 宇宙 本原의 이치에까지 닿음으로써 그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陳無擇이 君火외에 생명 유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相

火의 존재를 간과하고, 상대적으로 君火의 여러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一元의인 主火論을 통하여 생명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려 한 것은 「內經」에 담긴 본래 君火, 相火의 의미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朱丹溪는 相火를 虛無의 세계를 지나 궁극의 太極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太極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君火의 존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다²⁹⁾.

이상을 살펴보면 陳無擇과 朱丹溪는 각각 君火와 相火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앞서 君火와 相火의 관계에 대한 공평한 論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 두 사람이 논하려고 한 生命 本原의 天火의 의미는 서로 유사하며, 朱丹溪가 주장한 相火가 虛無에서 나온다는 개념이 조금 독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人火에 대해서도 朱丹溪가 君火의 특징으로 표현한 “形氣相生, 配於五行”의 의미와 陳無擇이 相火의 특징으로 표현한 “麗於五行, 人之日用者”의 의미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人火에 대한 두개의 상반된 論說이 함께 성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陳無擇은 相火를 사람이 날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애쓰는 옥구의 象으로서 보았던 것이며 朱丹溪가 君火를 形氣相生이라 표현한 것은 相火가 발동하기 이전 항상 君火가 먼저 先行하여 形을 키우고 다시 氣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다.

III. 結論

1. 朱丹溪는 「相火論」에서 君火와 相火에 대하여 각각 人火와 天火로 규정한 반면, 陳無擇은 「君火論」에서 相火는 사람이 매일 살아나가는 데 쓰이는 것이고 君火는 陰陽의 本原으로서 萬物을 資生하여 길러나가는 것이라 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서 喜樂이 출하여 心君火의 情志활동을 대신하는 등 君火의 자리가 相火의 것보다 내면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음을 말하였다.

27) 君火가 위치한 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少陰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臟腑上으로는 心腎이 모두 上下의 少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28) 君火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 뜻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나 그 목적하는 바는 外部와 交通하여 物我의 合一을 추구하므로 오히려 가장 먼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相火는 움직임이 밖으로 잘 드러나 外部를 지향하는 듯 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가장 내면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君火, 相火의 表裏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모순적인 論說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 人心에서부터 道心까지 도달하는 관문으로서 君火의 역할을 자세히 論하지 않았다. 心君火의 내면에 道心の 깃들이 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收心養心の 대상으로 君火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간 生命의 本原의 火에 대해서 陳無擇은 君火는 사람이 태어날 때 관여하는 先天의 火이며, 동시에 天와 사람 사이를 근원적으로 매개하여 사람이 살아나가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朱丹溪는 하늘이 萬物을 낳을 수 있고 萬物을 대표하는 사람이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相火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3. 朱丹溪가 말한 相火 즉 天火는 虛無에서 出하여 내면에 감추어져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陰部 또는 深部에 자리 잡게 된다. 上焦에 있는 心包를 제외하고는 相火와 관련된 臟腑는 모두 下焦에 있으며, 心包도 絡脈으로 연결되어 역시 下焦와 이어져 있다.

4. 陳無擇과 朱丹溪가 각각 論한 君火와 相火는 모두 인간 生命의 本原에 가까운 天火의 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天火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면서 대대적인 위치에 있는 君火 또는 相火의 의미까지 그 안에 포괄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5. 陳無擇과 朱丹溪는 각각 君火와 相火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앞서 君火와 相火 사이의 관계에 대한 公평한 論述을 하지 못하였으며, 논하려고 한 生命 本原의 天火 및 人火의 의미도 서로 혼재되어 상반된 해석을 가져오게 되었다. 단, 陳無擇은 相火를 사람이 날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예쓰는 욕구의 象으로서만 보아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며, 朱丹溪는 相火가 어떻게 발동하는가에 따라 生命활동의 대부분이 좌우된다고 보아 이를 妄動하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중요성을 둔 것으로 보인다.

IV. 參考文獻

<논문>

1. 趙昆霞. 相火論. 雲南. 雲南中醫學院報. 2005. 28(1). p. 34-36.
2. 吳小明, 李如輝. 肝腎同寄相火的發生學考察.

福建. 福建中醫藥雜誌. 2004. 35(6). p. 42-44.

3. 程暢和, 朱向東. 相火理論源流考辨. 甘肅.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 20(3). p. 12-13.
4. 楊震, 王安平. 丹溪相火學說探討. 陝西. 陝西中醫雜誌. 2000. 21(11). p. 506-507.
5. 楊利, 劉振傑. 相火芻議. 北京.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0. 6(11). p. 26-28.

<단행본>

1.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2006.
2.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集文堂. 서울. 2005.
3. 劉時覺. 永嘉醫派研究.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一中社. 서울. 1992.
5. 朱震亨. 格致餘論.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